

요약

테슬라의 자사 차량에 대한 맞춤형 자동차보험은 2016년부터 홍콩, 호주 등의 국가에서 제공되었으며, 2019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테슬라가 업무대행대리점으로서 직접 중개하는 보험상품이 출시됨. 2021년에는 실시간 안전 점수를 이용하는 보험상품이 출시되었으며, 2022년부터는 보험 자회사의 자동차보험을 공급하기 시작함. 테슬라 자회사의 원수보험료는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손해율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테슬라는 유럽에서도 자회사를 통한 자동차보험 공급을 추진하고 있음

- 테슬라 차량에 대한 맞춤형 자동차보험 프로그램 InsureMyTesla는 2016년부터 홍콩, 호주에서 제공되기 시작하였으며,¹⁾ 미국에서는 2017년부터 제공됨
 - InsureMyTesla의 대표적 특징은 테슬라 차량에 대한 손상 및 책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충전 장비에 대한 손상 및 책임까지 보장한다는 것이며,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된다는 점에서 기존 자동차보험 상품과 차이가 있음
 - InsureMyTesla는 초창기, 홍콩에서는 AXA General Insurance, 호주에서는 QBE Insurance를 통해 인수심사 및 제공되었으며, 미국에서는 Liberty Mutual를 통해 인수심사 및 제공됨
- 2019년 8월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최초로 테슬라가 업무대행대리점(Management General Agent; MGA)으로서 직접 중개하는 보험상품이 출시되었으며, 2021년 10월에는 텍사스주에서 최초로 보험료 책정 과정에서 운전자의 실시간 운전 데이터 및 안전 점수를 이용하는 보험상품이 출시됨
 - 2019년 8월, 캘리포니아주에서의 보험상품 출시 당시, 해당 상품은 State National Insurance가 계약심사자(Underwriter)로서 보험계약의 리스크를 감수하였으며, 테슬라는 MGA로서 보험계약 관리 및 청구 절차 업무를 담당함²⁾
 - 테슬라 운전자는 테슬라 사이트에서 차량 식별 번호를 입력한 후 견적을 요청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됨
 - 테슬라의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는 보험상품에 실시간 운전 데이터 및 안전 점수를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캘리포니아주에서의 최초 사내 보험상품 출시 시에는 제도적 제약으로 인하여 이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 텍사스에서 출시한 보험상품은 다른 테슬라 운전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과 차별적으로, 보험료 책정 과정에서 나이, 성별, 신용, 청구 기록 등 전통적인 요소를 이용하지 않으며 월말 운전자의 안전 점수 등 운전 행태에 따라 익월 보험료를 결정되는 방식으로 상품이 구성되어 있음

1) Electrek(2016), "Tesla enters car insurance business as self-driving cars prepare to disrupt the industry"

2) CNBC(2019), "Tesla dips into the car insurance business. Whether it would cost less is not clear"

- 최초 출시 버전인 안전 점수 버전 1.0의 안전 점수 평가 요소에는 ① 1,000마일당 전방 충돌 경고, ② 급제동, ③ 공격적인 회전 및 유턴, ④ 안전거리 미확보, ⑤ 강제 자율주행 장치 해제가 포함됨³⁾
- 출시 당시, 테슬라는 안전 점수에 기반하여 평균적인 운전자로 분류된 운전자가 타 자동차 보험회사 대비 최소 20% 정도의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음⁴⁾

○ 2022년 1월부터는 테슬라가 여러 보험회사를 인수하였으며, 이후 인수한 자회사의 자동차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함

- 테슬라에 인수된 보험회사 Balboa Insurance, Meritplan Insurance, Newport Insurance는 각각 Tesla Insurance, Tesla Property & Casualty, Tesla General Insurance로 회사명이 바뀌었음⁵⁾
- 자회사를 통해 판매되는 보험상품은 계약심사자인 자회사가 직접 보험계약의 리스크를 감수함
- 2023년 8월 현재 테슬라의 자동차보험은 총 12개 주에서 판매되고 있으며,⁶⁾ 12개 주 중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보험 회사가 보험료 책정 과정에서 안전 점수를 이용할 수 없고, 운전자 교육 목적에서만 이용할 수 있음
 - 다른 11개 주와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주 보험 가입자는 본인의 안전 점수를 제공받을 수 있음

○ S&P Global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내 테슬라 자동차보험의 원수보험료는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⁷⁾⁸⁾ 손해율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⁹⁾

- 테슬라가 MGA로 공급하는 자동차보험의 원수보험료는 2020년 4,750만 달러, 2021년 1억 1,170만 달러, 2022년 2억 4,290만 달러로 매년 2배 이상씩 성장함
- 테슬라 자회사가 공급하는 자동차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집계가 시작된 2022년 2분기부터 4분기까지 총 1,266만 달러, 2023년 1분기에는 1,404만 달러였으며, 손해율은 2022년 2분기(137.5%), 2022년 3분기(126.4%), 2022년 4분기(109.4%), 2023년 1분기(95.6%)로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
 - 한편, 테슬라 자회사의 보험상품은 ① 청구 처리 등 고객 서비스에 대한 경험 및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 ② 타 보험상품과의 결합 할인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꾸준히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 테슬라는 유럽에서도 자회사를 통한 보험 공급을 위해 2020년 12월 몰타에 Tesla Insurance Ltd(UK branch)를 설립하였으나, 아직 직접적인 판매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3) 보험료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안전 점수 시스템은 2022년 11월에는 안전 점수 버전 1.2로, 올해 3월에는 안전 점수 버전 2.0으로 업데이트됨
 4) Electrek(2021), "Tesla officially launches its insurance using 'real-time driving behavior', starting in Texas"
 5) S&P Global(2022), "Tesla among masters of 'very challenging' insurance carrier shell game"
 6) 캘리포니아주, 텍사스주, 일리노이주, 애리조나주, 오하이오주, 콜로라도주, 오리건주, 버지니아주, 네바다주, 유타주, 메릴랜드주, 미네소타주임
 7) 2022년 주 평균 보험료 기준, 사내 및 자체 보험상품의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였으며, 사내 및 자체 보험상품은 테슬라 차량을 보장하는 타 보험상품들 평균치에 비해 48.6% 저렴하였음
 8) 2022년 4분기 기준, 12개 주의 테슬라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테슬라가 직접 공급하는 보험은 평균 17%의 시장을 점유하였음
 9) S&P Global(2023), "Tesla's insurance business sees massive premium growth"